



# 집집마다 車車車...광주·전남 150만대 넘어서

### 광주 60만대·전남 90만대 등록 광주 4%·전남 12% 늘어...수입차는 30%↑ 전국 2100만대...국민 2.46명당 1대 보유

지난해 광주 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6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전남은 90만대 진입을 목전에 두게됐다. 동시에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도 대폭 증가해 광주 3만 4000여대 전남은 3만여대로 광주·전남 6만대 시대를 열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5년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지역 자동차등록대수는 총 61만1280대로 전년 58만9334대에 비해 3.7% 증가했다. 차종별로 승용차 49만5835대, 승합 2만 3843대, 화물 8만9507대, 특수 2095대 등

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89만7655대로 전년 80만7368대에 비해 11.8%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2만5780대, 승합 4만 1950대, 화물 22만4021대, 특수 5904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에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젤 연료에 대한 선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자동차 신규 등

록의 증가와 함께 수입차 등록도 크게 늘어 수입차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 지역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3만4265대로 지난해 2만6853대에 비해 27.6%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만3082대, 특수 646대, 화물 318대, 승합 219대 순이었다. 승용과 승합의 증가 비율이 각각 28.1%로 높았다.

전남의 경우 3만4848대로 전년 2만2714대에서 7334대 늘어 32.2%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 2만6777대, 특수 2326, 화물 745대, 승합 200대 순이었다. 승합과 특수 증가 비율이 각각 40.8%와 38.3%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수입차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비싼 차나 허영심 등으로 대변되던 외제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데다 차 가격

이 낮아지면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차 대중화로 여겨질 만한 현상에 대해 자동차 판매업계 한 관계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해외의 메이커들이 2000만~30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모델을 내세워 수입차 시장을 확대해 온 점이 지속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에 만 87만 2000대 늘면서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00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46명당 자동차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입차는 지난해 말 기준 28만8272대로 전년보다 6만5000대 29.2%나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45.45 (-44.19)	↓ 금리 (국고채 3년) 1.62% (-0.03)
↓ 코스닥 669.68 (-11.57)	↑ 환율 (USD) 1214.00원 (+8.10)

## 외국인 이탈행렬...코스피 '와르르'

33일간 8조9834억 매도... '1875.45' 전날보다 44%P ↓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위안화 약세에 따른 원화 약세로 환차손 부담이 확대된데다가 유가 폭락으로 오일머니가 대거 이탈하면서 외국인의 연속 순매도 기간이 역대 최장 수준으로 길어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하루 231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로써 외국인 순매도는 6일 한국항공우주 볼록달(시간외 대량매매)로 인한 순매수 전환을 빼고 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실상 33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벌인 셈이다. 이는 외국인의 역대 최장 연속 순매도 기간인 지난 2008년 6월9일~7월23일(33거래일 연속 8조9834억원 순매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순매도 기간에 팔아치운 주식은 538000억원 규모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세가 지속되며 국

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약 6년5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기준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은 397조959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1390조650억원) 중 28.63%에 그쳤다. 이는 2009년 8월17일(28.5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작된 이번 순매도 행진은 중국 증시의 불안과 유가 급락 등의 악재가 더해지며 새해 들어 강도가 더 거세진 모습이다.

이에 증시는 연일 시름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34% 급락한 1845.45로 장을 마쳤다. 약 5개월만의 최저 수준이다. 홍콩H지수가 장중 8,000선을 내주며 폭락하고 일본 증시도 장중 3% 넘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연협뉴스



## 광주국세청, 여수서 현장 소통

### 중소상공인 애로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0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사진)를 갖고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지역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고 성장적인 경제활동을 위촉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조사 축

소”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애로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사후검증·세무조사 축소 등을 통해 세부조사를 최소화하여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세정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 올 지역 건설 수주 전망 어둡다

### 대형 국책사업·지자체 신규공사·주택공급 감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위주로 옮겨가고, 올해 공사 수주액은 신규 주택물량 감소로 지난해 보다 줄어듦으로 전망됐다.

20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김영구)에 따르면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100억원 미만 공사 수주액 비중은 2012년 53.8%에서 2014년에는 44.6%로 감소했다.

반면 100억원 이상 공사 비중은 2012년 46.2%에서 2014년 55.4%로 높아졌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이 소규모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수주영역은 대형공사로 바뀌고 있지만 수주액 실적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도내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액은 2012년 8조2601억원, 2013년 8조4030억원, 2014년 9조3917억원에서 지난해 9조3000억원

으로 줄었다.

올해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는 올해 대형 국책 건설사업이 없는데다 지자체 신규공사 감소, 신규 주택공급 감소 등으로 올해 수주액이 지난해 보다 8% 감소한 8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주택사업이 2014~2015년에 집중돼 올해부터는 지방의 신규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부담도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신규공사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 수는 914개사로 전국 1만1216개사의 8.1%를 차지했다. 이 지역 종합건설업체 수는 2012년 939개사에서 2013년 897개사, 2014년 889개사로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화제의 '부라더#소다 #딸기라 알팔팔'

### SNS 조회수 80만건...판매문의도 급증

보해양조류(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 14일 출시한 부라더#소다의 계절 한정판 '부라더#소다 #딸기라 알팔팔'이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부라더#소다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brother\_soda/)에서 제품 출시 성공 후 소비자들의 판매처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 이에 보해양조류는 공식 SNS를 통해 판매처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도 신제품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게시글의 조회수가 80만건을 넘어서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새롭고 달콤한 딸기 맛과 부라더#소다와의 조화가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딸기라 알팔팔'이라는 제품명도 독특하고 신선하다는 평이다. 여기에 이번 신제품이 5월까지만 맛볼 수 있는 한정판 제품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부

라더#소다를 즐겨왔던 2030 젊은 소비자들 중심으로 입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해양조류는 빠른 시일 내에 마트와 편의점에 제품 입고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국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이번 신제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무출산 여성' 희망 33~67세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차선행 810 02) 521-4405  
호남지사 (061) 275-7766

## 국내산 참나무장작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남권 전지역 3루베이상 무료배송 (일부지역 제외)

절단목	쪼갬목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장작구이, 캠핑용 등 각종 용도별 생산  
주문상담 ☎ (061) 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